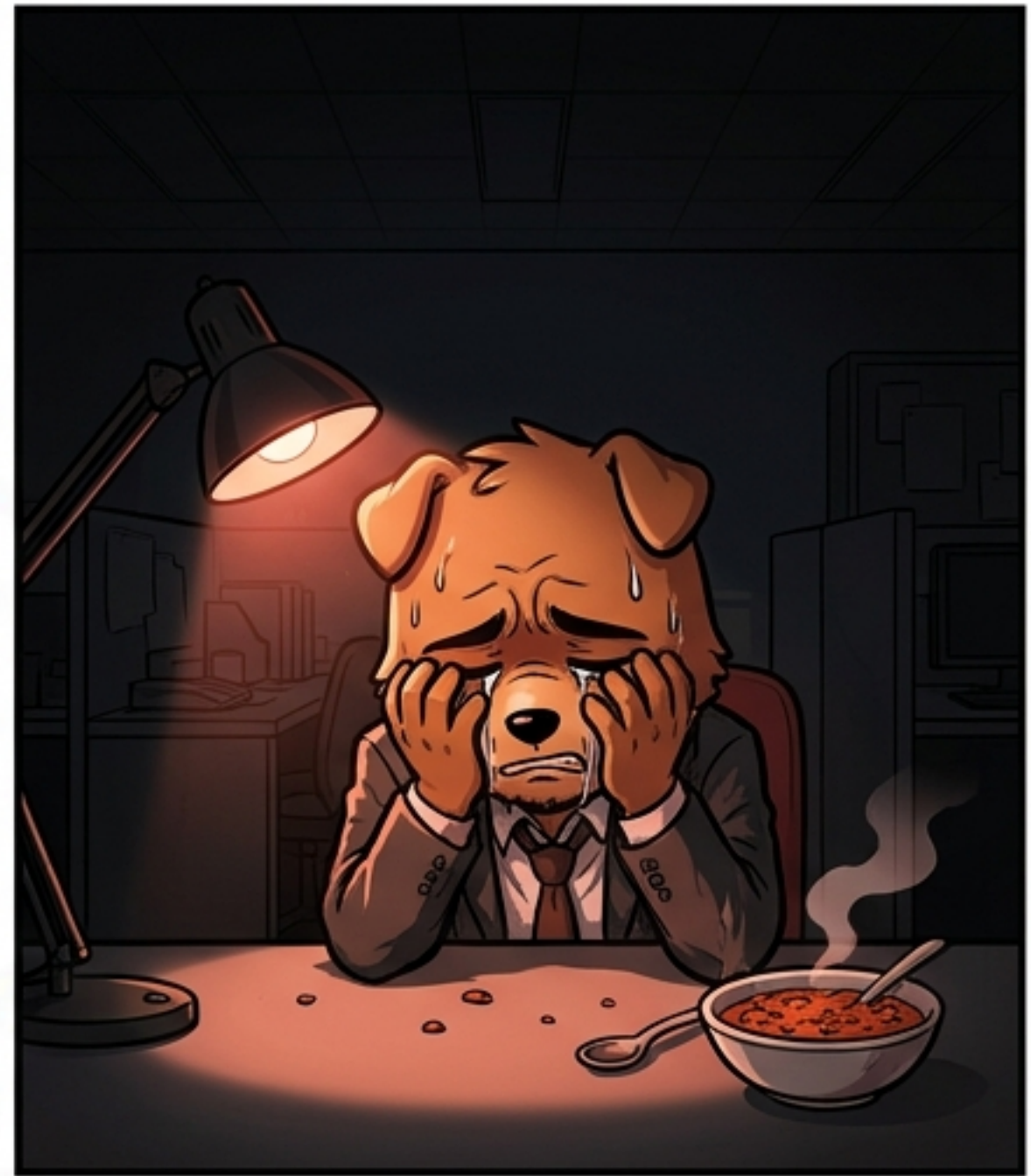


그 까짓 거,
당장 밥 먹여주냐?

**그 까짓 것,
개나 줘라**

**당장의 피로에 휘둘려
당신이 놓치고 있는 영원한 가치
(The Ultimate Failed M&A Deal)**





오늘만 사는 현대인들의 입버릇

교회가 밥을 주냐?
원칙이 밥을 먹여줘?

치열한 비즈니스 위기 앞에서는
보이지 않는 본질적 가치를
가장 먼저 내던지게 됩니다.

The Key Question:
당장 배고파 죽겠는데,
보이지 않는 가치가
무슨 상관일까요?

인류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'가치 교환' (창세기 25:27-34)

- 성경에 기록된 에서와 야곱의 팔죽 한 그릇 사건은 단순한 형제간의 에피소드가 아닙니다.
- 이는 '단기적 생존(Short-term ROI)'과 '영원한 핵심 자산(Long-term Equity)'이 충돌하는 역사상 가장 뼈아픈 M&A 실패 사례입니다.



The Archetype Matrix: 두 가지 인생 전략

Dimensions



에서 (Esau) : 단기 생존주의자

야곱 (Jacob) : 장기 전략가



성향
(Personality)



들사람 (Man of the outdoors)
/ 활동적

조용한 사람 (Man of the
indoors) / 사색적



초점
(Focus)



현실 생존
(당장의 허기 해결)

미래 약속
(보이지 않는 가치 축적)



타임라인
(Timeline)

오늘 (Today)
- 내가 지금 죽게 되었으니

내일 (Tomorrow)
- 오늘 내게 맹세하라

핵심 가치
(Core Value)

눈에 보이는 붉은 죽
(Visible Lentils)

보이지 않는 영적 약속
(Invisible Promise)

기회는 준비된 자의 것: 야곱의 끈질긴 집착



형의 장자의 명분을
오늘 내게 팔라 (창 25:31)

- 이 제안은 우발적인 충동이 아니었습니다. (Cunning & Crafty)
- 조용히 장막에 거하던 야곱은 평소에도 이 '무형의 자산'을 얻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.
- 극한의 피로를 안고 돌아온 형의 약점을 파고든 치밀한 '타이밍 전략'이었습니다.



무심코 던진 말이 드러내는 인생관

‘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(창 25:32)
‘그 까짓 것, 개나 주라 그래!’

사람의 본질적인 우선순위는 위기의 순간, 극한의 피로 속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.
에서는 당장의 배고픔(기회비용) 앞에서 자신의 가장 고귀한 정체성을 지불해버렸습니다.

당신의 '장자권(Birthright)'은 안녕한가요?



장자권은 단순히 재산을 두 배로 상속받는 권리가 아니었습니다.



비즈니스적 의미: 기업의 '브랜드 에퀴티(Brand Equity)' 및 '핵심 가치(Core Values)'



영적 의미:
가문의 영적 유산,
언약의 계승권,
하나님과의 절대적 관계
(출 4:22 이스라엘은 내 장자라)

야곱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가치가 인생의 '지속 가능성(Sustainability)'을 결정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.



팥죽이 아니라 '붉은 렌틸콩(Lentil) 죽'입니다

엄밀히 말해 에서가 넘긴 것은 달콤한 팥죽이 아니라 붉은 렌틸콩 죽이었습니다. 이 '붉은 것(Red Stew)'은 우리를 유혹하는 당장의 포만감, 즉 눈앞에 보이는 단기적 ROI를 상징합니다. 단 한 번의 식사가 영원한 언약을 이겨버린 순간입니다.

Highest

Market/Spiritual Value (가치)



Sacred / Premium 지위 지위

‘망령된 자’ : 스스로 가치를 파괴하다

음행하는 자와 혹은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(히브리서 12:16)

망령되다(Profane) : 거룩하고 고귀한 것을 함부로 대하여 무가치하게 만드는 행위.

세상이 부여한 'Premium' 지위를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로 '싸구려 상품(Commodity)'으로 전락시키는 가장 뼈아픈 투자 실패입니다.

그 까짓 것!

Common / Commodity (싸구려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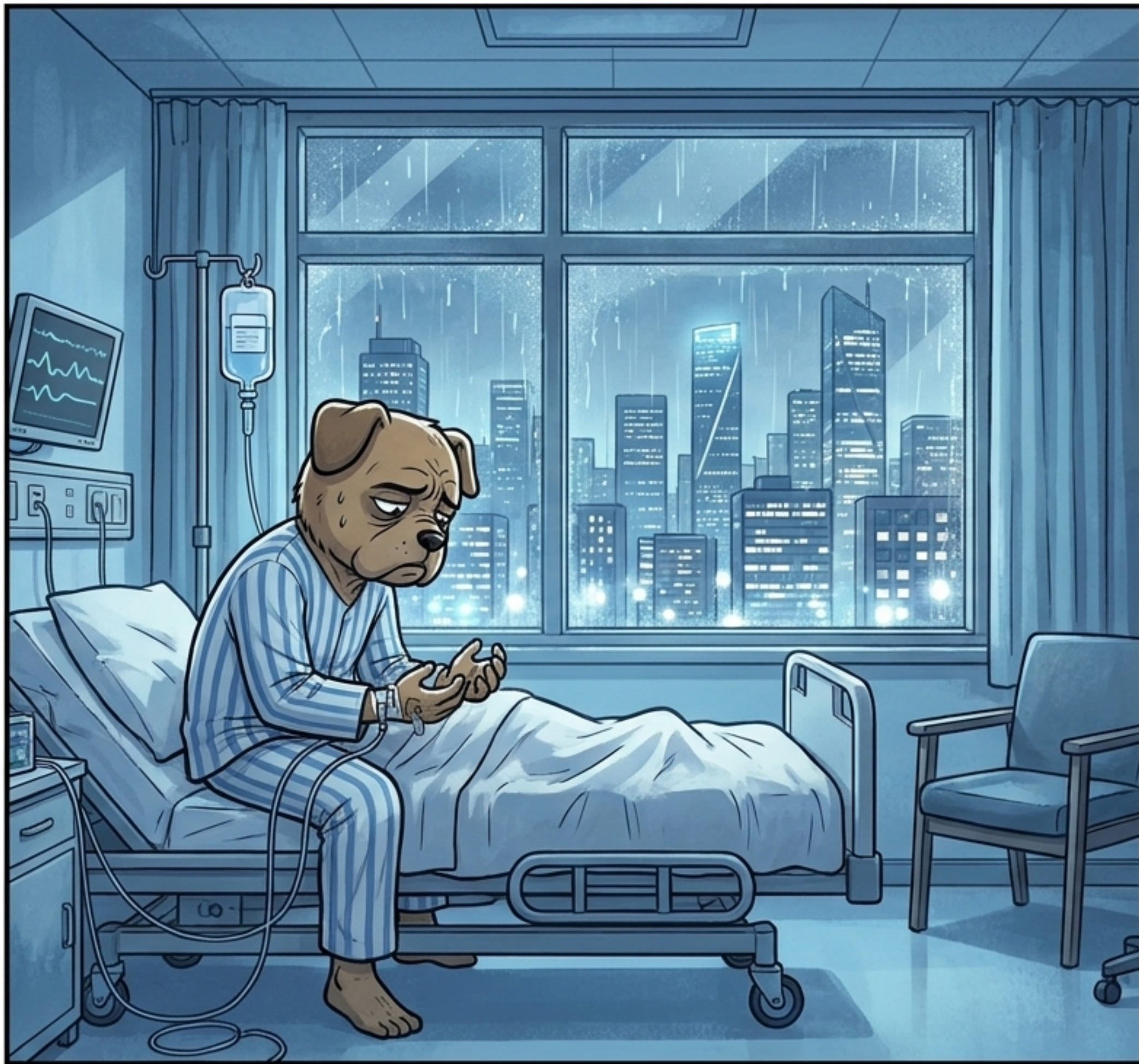
Time (시간)



현대판 에서의 등장: 한 성공한 사업가의 외침

어느 성공한 비즈니스맨의 변명: '내가 내 종자고 일해? 다 가족 먹여 살리려고 이러는 거 아냐!'
그에게 신앙과 가정은 귀찮은 잔소리였고, 오직 '사업적 성공'만이 인생의 절대적인 1순위였습니다.
'교회에 밥을 주냐?'라는 외침은 곧 에서의 '장자권이 내게 무슨 유익이냐?'와 완벽하게 겹칩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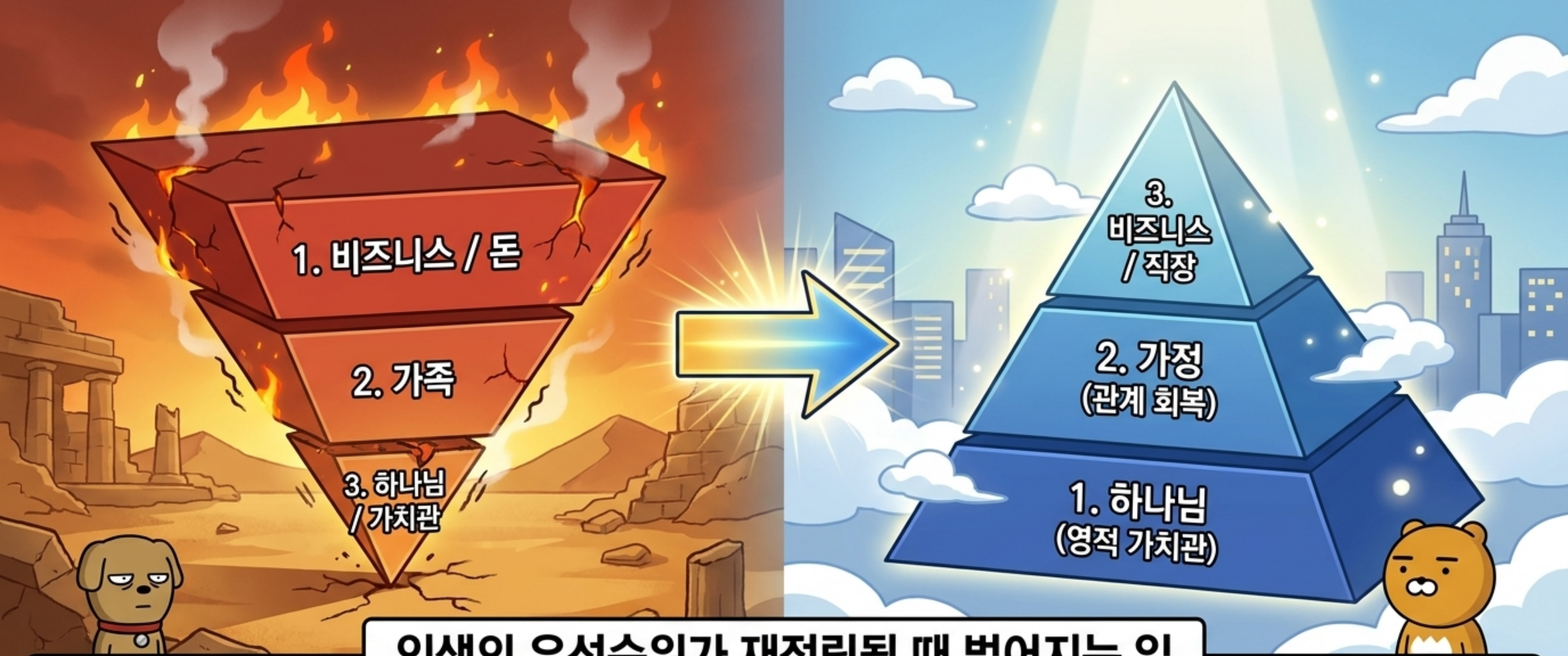


1순위가 무너지는 치명적 위기의 순간

1. 갑작스러운 **"간암 선고"**. 죽음의 공포 앞에서 그가 그토록 매달렸던 사업적 성공은 그를 1%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.

2. 병상에서 처절하게 지난 삶을 돌아본 그는 자신이 **"헛된 렌탈콩 죽"**을 위해 **"인생의 진짜 장자권"**을 잃어버렸음을 깨닫습니다.

3. 퇴원 후, 그는 가족과 아내 앞에 무릎을 꿇고 **진심 어린 용서**를 구합니다.



인생의 우선순위가 재정립될 때 벌어지는 일

우선순위를 바꾼 후 그는 고백했습니다.

“세상의 것을 끊어내니까, 내 주위에 진짜 좋은 사람이 있는 줄 비로소 알게 되었다.”
진심 어린 회개와 가치관의 회복 후, 그는 기적으로 치유되어 오랫동안 가족과 행복을 누렸습니다.

Immediate Gratification /
Short-term Profit (렌탈콩 죽)

Brand Equity / Identity /
Relationships (장자권)



당신의 저울에는 지금 무엇이 올라가 있습니까?

🐻에서는 세상을 서핑하는 기술은 뛰어났지만, 본질을 꿰뚫는 영적 안목은 닫혀 있었습니다. 반면 야곱은 보이지 않는 가치의 무거움을 붙든 집요한 '장기주의자'였기에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. 질문: 당신은 지금 렌탈콩 죽 한 그릇과 무엇을 바꾸고 있습니까?



한순간의 선택이 평생의 이름표가 된다

-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**에돔(붉음)**이더라 (창 25:30)
- 성경은 에서의 별명이 '**에돔**'이 된 이유가 바로 이 **렌틸콩 죽 사건** 때문임을 명확히 강조합니다.
- 단 한 번의 가벼운(Scorn) 선택이, 그의 평생 브랜드이자 후대의 정체성이 되어버렸습니다.
-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'**그까짓 것**'이라는 말이 우리의 '**거룩한 품격**'을 조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?

당장의 포만감이, 영원한 가치인가

매일의 비즈니스 현장과 선택의 기로에서
우리는 여전히 에서와 야곱의 갈림길에 섭니다.

당신의 손에 든 '렌틸콩 죽' 한 그릇을 위해,
당신의 영원한 보물인 '장자권'을 던져버리지 마십시오.

눈앞의 생존을 넘어 당신의 영혼을 채울
영원한 핵심 가치(Core Values)를 선택하십시오.
그것이 진정한 성공의 지혜입니다.